

벼 소식재배가 품종 및 재식밀도별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황재복^{1*}, 김재현¹, 엄미옥¹, 정충섭¹

¹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서론]

최근 벼 재배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농촌 고령화에 의해 저비용-생력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식량안정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특색과 생산체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소식재배가 일부 농가 및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식재배는 모판수를 줄여 생력화 및 생산비를 줄이는 이앙방법으로 육묘량을 줄여 육묘 비용과 이앙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된다. 그러나 밀파육묘에 따른 모소질 저하, 수량 저하 우려, 분얼이 많아 등숙지연에 따른 품질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본 시험은 벼 품종 및 재식밀도별로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시험 작물: 동진찰
- 이앙일(월.일): 6. 6(손이앙)
- 재식밀도: 37주(30cm × 30cm), 50주(30cm × 22cm), 관행(30cm × 16cm)
- 주당본수: 4본
- 주요 조사항목: 재식밀도별 생육 및 수량성, 품질 등

[결과 및 고찰]

- 모소질에서 초장은 파종 후 10일까지는 220g(어린모 기준)이 컸으나 15일 이후는 300g(밀파기준)에서 웃자라기 시작했으며, 줄기 굵기는 300g이 220g보다 가늘게 자라는 경향으로, 15일 이후에 300g에서는 모소질이 약한 특성을 보임
- 유수형성기의 신동진의 초장은 37주가 94cm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50주, 관행구인 70주 순이었으며, 경수는 소식재배가 29개/주, 21개, 17개 순이었고, 동진찰의 초장은 77~79cm로 재식밀도별 일정한 경향은 없었으나 경수는 각각 34개, 28개, 21개 순이었음
- 수확기의 신동진의 간장은 37주, 50주, 70주에서 각각 87cm, 82, 79, 주당 수수는 25개, 17, 15 이었고, 수장은 20cm, 19, 19이었으며, 동진찰의 간장은 76cm, 74, 72, 주당 수수는 27개, 22, 17, 수장은 18cm, 18, 16이었음
- 본 시험은 소면적 단구제로 수행하였으며 연차간 생육 및 수량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과제번호: PJ01200804)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주저자: Tel. 063-238-5363, E-mail. hjb0451@korea.kr